

외국어고 입시에서 영어 동점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외국어고 입시는
1단계에서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하는데, 영어만
반영한다고 들었어요.
동점자가 많을 경우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취재 이지혜 리포터 wisdom@naeil.com
도움말 김에스터 교사(서울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입학홍보부장)
자료 '2027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매뉴얼'

최근 학기 국어·사회 교과 성적순으로 반영

외고는 1단계에서 영어 내신 성적과 출결을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하지만 중학교는 고교와 달리 성취평가제라 급간이 적은 데다, 지원자의 상당수는 영어 성취도 A인 경우가 많아 영어 내신 성적만으로는 당락이 갈리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외고 지원을 준비한다면 동점자 처리 기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고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영어 성적이 같은 지원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가장 최근 학기의 국어, 사회 교과 성적을 순차적으로 반영해 동점자를 가립니다.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순으로 성취도 수준을 반영해 선발하는 식이죠. 즉 영어 성적이 모두 만점이라도 최근 학기 국어와 사회 성적에 따라 1단계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대일외고 김에스터 교사는 “외고 지원을 앞두고 영어 성적이 모두 성취도 A라며 안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동점자 처리 시 3학년 2학기 국어와 사회 성적이 당락을 가를 수 있다. 영어뿐만 아니라 마지막 학기 국어와 사회 교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